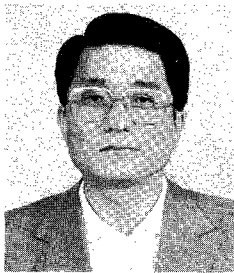


더불어 가는 세상



박 용 윤
축산기술연구소 번식생리과장

옛날 우리 조상들은 향학이나 두레라는 조직체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 마을 길닦기 등에는 서로 협조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선 배우게 되는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인 것이다.

모든 것이 어머니 손길이 아니면 되는 것이 없는 시대에서 서서히 제홀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즉 자기 혼자만의 세상이다. 그러다가 유치원 시절이 되면 자기 만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의 기치아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지긋지긋하던 보릿고개는 사라졌다.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GNP 10,000\$시대가 우리에게 오니 자기만 잘 살면되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만연되었다.

작년말경 IMF라는 고통의 시대를 맞게 되니 주요한 생필품인 설탕, 라면, 밀가루 등을 상인은 물건을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알뜰한 생각이 있고 소비자는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사두자는 생각으로 다투어 사재기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연 자기 혼자만 먹고살면 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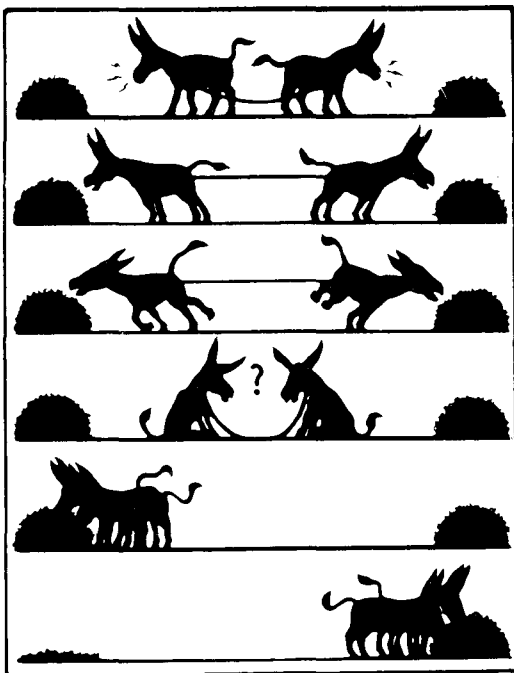
야 한다.

그러나 혼자만의 기술로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조그만 것은 가능하겠지만 단위가 커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가지 기술로는 어렵고 각기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조합하여 집단화할 때는 무시하지 못할 큰 힘이 생기는 것이다.

임금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사회는 별탈없이 굴러갔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 현재는 독불장군만으로는 곤란하다.

내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지난 일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 혼자서 멀리 진주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먼저 다니고 있던 K과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임금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사회는 별탈없이 굴러갔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
현재는 독불장군만으로는
곤란하다.

”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돌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어떤 일이든 가능토록해서 일을 하게되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 학위를 받게 되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부서에 관한 것 한 가지를 소개해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시켜놓고 결과를 기다렸더니 기러기 한백년이였다.

그 사람이라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한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다.

이를 거울삼아서 다음해에는 한팀을 만들어 같은 일을 시켰더니 자기가 맡은바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였더니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혼자만이 열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양계**